

2026 신기훈 변호사 GS2 모의고사 (7회) (대법원 2008. 5. 8. 선고 2007두10488 판결 기반 창작 사례)

(제시문)

주식회사 가락물류(이하 '원고')는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사업장(이하 '이 사건 사업장')을 두고 냉동화물 운송 및 상하차 작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.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주로 지육(枝肉)을 냉동화물자동차로 운송하는 업무와 이를 상하차하는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다. 원고는 2004년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당시 근로복지공단(이하 '피고')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'화물자동차운수업'으로 통지받았고, 이에 따라 해당 보험료율(1000분의 21)을 적용받아 산재보험료를 납부해 왔다.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검토한 결과, 냉동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운송업무보다 지육의 상하차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가 더 많고 임금총액도 더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. 이에 원고는 2004. 12. 28.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종류를 '화물자동차운수업'에서 보험료율이 더 낮은(1000분의 13) '육상화물취급업'으로 변경해 줄 것을 신청하는 내용의 보험관계변경사항신고서를 제출하였다. 피고는 원고의 신청을 접수한 후 담당 직원을 통해 "검토 중"이라는 구두 답변만 하였을 뿐, 2005. 6. 30. 현재까지 약 6개월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. 원고는 2005년도 산재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어, 사업종류 변경 여부가 확정되지 않으면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또는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연체금 및 가산금을 부담하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처지에 놓여 있다.

(참조법령)

「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」

제11조(보험관계의 신고) ① 사업주는 제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당연히 보험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, 사업의 폐업·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 또는 소멸 신고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구분에 따라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.

제24조(가산금의 징수) ① 공단은 사업주가 제19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한까지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사실과 달라 제19조제4항에 따라 보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한다.

제25조(연체금의 징수) ① 건강보험공단은 사업주가 제16조의7,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보험료 또는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보험료, 그 밖의 징수금의 1천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연체금을 징수한다. 제5조(보험가입자) ① 「고용보험법」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른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.

③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.

제28조(징수금의 체납처분 등) ① 건강보험공단은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까지 보험료나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.

[물음1] 원고가 피고의 부작위에 대하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.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제기하였음을 전제로, 피고의 부작위가 위법한지 여부에 관하여 논하시오. (30점)

[물음2] 위 소송에서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근로복지공단이 원고의 신청을 반려하자, 원고가 간접강제신청을 한 경우, 원고의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지 검토하시오. (20점)

